

# MB “재보선 국민 뜻 무겁게 받아들인다”

# 3개 구조대 번갈아 베르크슈룬트 수색

이인정 회장 네팔로... 김재수·김창호·진재창 씨 합류

## 靑 개편 착수... 국정 홍보 강화할 듯 20~40대 청·장년층 대책 마련 부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10·26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는 자기 반성과 함께 후속 조치에 대한 메시지가 실려있다는 분석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정전대란’ 미숙 대응과 ‘내곡동 사저’ 논란, 측근 비리의혹 등 약점이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 표층일 현상은 청년실업과 등록

금 문제, 집값·직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투영돼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고민들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일부 참모진의 교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정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차단하고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 초점은 일태의 대통령실장에게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이 대통령의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어 교체 여부에 대해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면전환을 개각이나 인위적인 인적 해산에 대한 부정적이다. 대부분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데다 새로운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다만 일부 부처 장관의 교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의 교체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과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듯이 20~40대 청·장년층 대책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참모는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향후 국정운영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어야 하는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20~40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는 무엇보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영석 실종 2차 구조대 투입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박영석 원정대를 찾기 위한 2차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이 29일 현지 상황 파악과 구조대를 지원하기 위해 네팔로 출국한다.

27일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김재수·김창호·진재창·강성규·구은서 씨 등 새로 합류한 대원과 세르파를 합쳐 19명이 유력한 실종 추정지점으로 거론되는 안나푸르나 남벽 출발점 근처 깊이 30~40m로 추정되는 거대한 틈(베르크슈룬트)을 집중 수색하기로 했다.

구조대는 해발고도 5800m의 실종 추정 지점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날 박영석 원정대가 설치한 임시 텐트(5670m)까지 올라가 밤을 보냈다.

기온이 낮은 밤에는 눈이 얼어붙어 낙석과 눈사태가 적은 데다 안개도 적어 새벽부터 오전까지 구조·수색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구조대는 대원 1명과 세르파 4명 등으로 3개조로 나뉘어 남벽 출발점 근처의 베르크슈룬트 내부에 계속 번갈아 들어가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사고대책위원장인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29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로 출국, 박영석 원정대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협찬한 수색활동이 펼쳐지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를 격려할 계획이다.

박영석 대장과 강기석, 신동민 대원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위성전화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 실종 시간은 10일째로 접어들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6일 박영석 원정대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발 지점에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제공>

# 여야, 한미FTA 정면충돌 하나

與 “조기처리 가능성” 野 “강력저지 나설듯”

## 남경필 “아당서 깨지고 하면 일방처리”

10·26 재보선 결과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권 수뇌부가 여전히 ‘10월내 처리’ 목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교통일위원장이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11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에 공감대를 형성

해 가고 있어 이번 선거 이후 여야 합의 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압력 ‘방조’하에 큰 물리적 충돌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이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을 전격 수용해 25일 외통위에서 처리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선거 패배로 정국 상황이 달라져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야당이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주도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동시에 역으로 여권이 국면전환 차원에서 조기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여권이 예초 목표로 10월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피해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비준안 조기처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강행처리를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버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중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좀 더 갈(기다릴) 수 있지만 야당에서 깨지고 하면 일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10·26 재보선 개표 완료 직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한미FTA 비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 진도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나갔다. 숫자로 말하면 70~80% 정도 타결됐고, 나머지 20~30%를 잘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대치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밤늦게까지 한나라당과 접촉했지만 민주당의 ‘10+2’ 조항에 대해 아직도 분명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장애여성·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 ‘도가니 법안’ 법사위 통과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인 여성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의화, 권경석, 박민식, 원희목, 김소남, 조운선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최영희, 김학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수사 박차

### 좀비 PC 2대 확보

경찰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 공격했던 좀비 PC 2대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사한 시간대에 유사한 공격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는 접속 기록 확보가 쉽지 않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27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100여

개의 IP 주소를 토대로 좀비PC를 찾아내 하드디스크 2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좀비PC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석 작업에 걸리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공격 배후를 밝히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았던 박원순 시장의 ‘원소

닷컴’(www.wonsoon.com)의 경우 아직 공식 수사 의뢰가 없었던 데다 로그 기록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의 홈페이지는 선거 당일인 26일 오전 1시47분~1시59분에 1차 공격을 받은 데 이어 5시50분~6시52분에 2차 공격을 받았고 선관위 홈페이지는 6시15분~8시32분에 공격을 받아 외부 접속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사업내용**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SMP가격과 인증서 판매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 및 RPS기관에 판매하는 발전 시스템

**인증서 판매가격 : 입찰을 통하여 결정**

- ▶ 신청대상 :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를 소유한 자
- ▶ 수익성 : 건설 투자비 회수는 약 8~9년, 수익은 건설비용의 약 2배 창출
- ▶ 건설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사업허가~준공까지)

**태양광 주택**  
3kw기준 800만원으로 시공가능!!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선착순 신청/접수**

설치효과 월 평균 92,49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5,11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 잡음없이 잘 들린다 음성증폭기 블루투스형출시!!

속 시원하게 잘 들립니다~ 너무 편리한 소리큐 S20 고성능 음성증폭기

음성이 잘 안들리실 때!  
두손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주변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TV를 시청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핸드폰 통화할 때! 상담할 때!  
강의를 하면서 대중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으신 분!  
건전지가 필요 없는 충전식! (고속충전·정시간 사용)

귀에 꽂은 상태로 작은소리를 크게 듣고싶은 분들에게 소리큐 S20 음성 증폭기는 좋은 친구가 될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특별우대 ★ 어르신께 최고의 선물 ★

인체공학적 초소형 초경량 블루투스형 설계로 성능을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간편한 휴대, 간편한 사용!

무게 9g 길이 5.5cm의 초경량 초소형 인체공학적 블루투스형 설계로 착용시 무게감이 없어 편안하며 TV시청, 운동, 업무처리등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부에 노출시 거리낌 염려가 없고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사용 할수 있게 설계된 첨단 고성능 음성증폭기로 성능 올리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 생산하여 뛰어난 품질과 사후관리를 1년간 무료교환 보장합니다.

▶ 이어부식 사용 ▶ 편리한 사용방법 ▶ 목걸이로 분실 걱정없이 휴대가능 ▶ 양쪽 귀로 청취가능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일상대화 | 텔레비전 시청 | 공연관람 | 강연회 | 조류관찰 | 자연관찰 | 야간감시 등등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20-6번지  
송정한방병원 건물 4층 원일엠에스

문의 : 062)942-9822

상담 문의 062)268-5118 017-310-4119 010-9435-0441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www.jwsolar.co.kr